



보도 일시	2023. 1. 19.(목) 13:00	배포 일시	2023. 1. 19.(목) 13:00
담당 부서	대구지방기상청 예보과	책임자	과 장 김동수 (053-282-0120)
		담당자	전문관 신혜경 (053-282-0130)

## 설 연휴(1.21.~1.24.) 기상전망

- 설 연휴 구름많고 후반 강추위, 울릉도.독도 많은 눈 -

### 주요 내용

- 설 연휴 기간 대구·경북 구름많고, 울릉도.독도 많은 눈 주의
- 24일(화) 이후 대구·경북 매우 추운 날씨, 동해상 높은 물결 주의



1/20(금)	1/21(토)	1/22(일) 설날	1/23(월)	1/24(화)
<p>구름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짐</p> <p>경북북부내륙, 경북북동산지 오전 가림 눈 곳</p> <p>동해면바다 2~5m</p> <p>최저 -5~2℃ 최고 0~5℃</p> <p>평년과비슷</p>	<p>구름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짐</p> <p>동해 전해상 1~3m</p> <p>최저 -13~-5℃ 최고 1~5℃</p> <p>평년과비슷하거나 낮음</p>	<p>대체로 흐림</p> <p>동해 전해상 1~3m</p> <p>최저 -7~0℃ 최고 3~6℃</p> <p>평년과비슷</p>	<p>구름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짐</p> <p>동해 전해상 2~5m</p> <p>최저 -5~2℃ 최고 3~6℃</p> <p>평년과비슷</p>	<p>대체로 맑음</p> <p>동해 전해상 2~5m</p> <p>최저 -13~-8℃ 최고 -7~-4℃</p> <p>평년보다크게 낮음</p>

- 대구지방기상청(청장 서장원)은 국민 생활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1월 21일(토)~24일(화)에 대한 기상 전망을 발표하였다.
- 이번 설 연휴는 설 당일(1월 22일)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(화)부터는 전국적으로 매우 추워지는 만큼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

## [ 기압계 전망 ]

- 이번 설 연휴 초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대체로 맑겠으며, 설 당일은 저기압, 그 이후는 북서쪽에서 확장해오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21일(토)까지 대구·경북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, 21일(토) 아침 기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뒤 낮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설 당일인 22일(일) 대구와 경상북도는 북쪽과 남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 사이에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, 23일(월)부터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, 울릉도·독도는 23일(월)부터 26일(목)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한편, 22일(일)에는 경상권과 강원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분석하면서, 연휴 기간 동안 영향을 줄 저기압과 대륙고기압의 강도와 위상에 따라 강수 시작 시점, 강수 영역, 그리고 강수 형태에 대한 예보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.

## [ 기온 전망 ]

- 20일(금) 오후 ~ 21일(토)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21일(토) 아침 기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겠지만 다시 회복하여 설 당일(22일)까지는 기온이 평년(일최저기온: -7~-2℃, 일최고기온: 3~6℃)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23일(월) 오후부터 대륙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낮아져 24일(화)에는 대구 아침 최저 기온도 영하 11℃가 예상되는 등 대구·경북 대부분 지역이 한파특보에 해당하는 울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면서,
- 연휴가 끝난 뒤에도 당분간 기온이 매우 낮은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와 시설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.

## [ 풍랑·강풍 전망 ]

- (풍랑) 설 당일(22일)까지는 동해남부해상에 0.5~2.0m 수준의 물결이 일겠지만,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는 23일(월) 오후부터 25일(수)까지 바람이 시속 35~60km(초속 10~16m)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.0~5.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전망하면서,
- 특히 귀경길 높은 물결로 인해 해상교통이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.
- (강풍)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는 23일(월) 오후부터 25일(수)까지 울릉도, 독도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시속 30~60km(초속 8~16m)의 바람과 함께, 순간적으로 시속 70km(초속 20m) 이상의 강한 돌풍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전망하였다.

## [ 설 연휴 기상 정보 ]

- 또한, 대구지방기상청은 1월 19일(목)부터 육상 날씨뿐만 아니라 해상, 공항, 항만 등의 날씨정보를 포함한 설 연휴 기상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. 대구지방기상청이 제공하는 설 연휴 기상정보는 날씨누리 (<http://www.kma.go.kr/daegu>)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
- 1월 20일(금) 낮 12시부터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 채널인 엽TV (<http://www.youtube.com/c/엽TV>)를 통해 기상청 예보분석관이 설 연휴 날씨에 대한 실시간 질의응답을 하는 2023년 설맞이 날씨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.
- 대구지방기상청장은 “연휴 기간 중에도 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날씨를 감시하여 빠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 라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“예보시점이 멀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설 당일과 그 이후 날씨에 대해서는 향후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와 예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십시오” 라고 전했다.



지역별 자세한 날씨는  
**1월 19일(목)**부터 제공되는 “설 연휴 기상정보”를 참고  
<http://www.weather.go.kr/w/special/newyear/index.do>